

12 경희의터전 2024-부산 동광동 · 동대신동 캠퍼스

의지는 역경을 뚫고 협동은 기적을 낳는다

*연재순서

⑥ 시리즈를 시작하며

① 광릉캠퍼스

② 국제캠퍼스

③ 서울캠퍼스

④ 부산 동광동 · 동대신동 캠퍼스: 의지는 역경을 뚫고 협동은 기적을 낳는다

김희찬 경희기록관 관장

한국전쟁은 나라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 비극 그 자체였다. 국가는 존망의 기로에 섰지만, 우리는 피란지 부산에서 교육을 통한 희망의 미래 세계를 설계했다. 이러한 희망과 신념은 피란지 부산에서 2년제 초급대의 인수와 함께 동광동·동대신동 가교사 건립으로 이어졌다.

동광동 가교사 완공 전까지는 부산역 앞 40계단 밑 백양다방(白羊茶房)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학생 등록을 받았다. 이때 학생 수는 고작 45명에 불과했다. 학생 모집과 더불어 단독 개강을 위한 임시 교사(校舍) 물색, 교구재 준비, 교강사 편성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처리해 나갔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을 전신연합대학에 위탁 수강케 함과 동시에 당시 국민대학이 사용하고 있던 영주동 양재학원(洋裁學院)의 강의실을 빌려 일부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1951년 6월 10일 동광동 5가 3번지 염광교회(鹽光教會)에 딸린 땅을 얻는 데 성공했고, 이후 8월 20일 단독 개강했다. 동광동 가교사는 당시 1,800여만 원을 들여서 본부 건물 1동(학장실, 사무실, 숙직실), 교사 2동(강의실 5개)을 신축하였다. 이때 등록한 학생은 전라도와 대전, 청주, 대구 등지에서 모집한 74명의 학생, 그리고 재학생 48명을 합하여 122명이었다.

학생 수가 적고 조그마한 초급대학이었지만, 교강사진과 학생의 열정만은 어느 누구보다 높았고,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학교 기반을 다지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당시 강의를 맡은 교강사진을 보면, 조영식(민주주의론), 김명복(체육사), 윤영춘(중국문학사, 문학개론), 최태영(법학통론, 상법), 최호진(경제원론, 경제사), 이종극(헌법, 행정법), 이건호(국제법, 형법), 진승록(민법), 김용갑(재정학), 김용달(민법), 김성식(서양사, 문화사), 한성수(민사연습), 이원우(국제정치), 김윤도(형사

소송법), 김치걸(민사소송법), 윤주영(정치사), 이근수(영어) 등이었다.

1951년 8월 20일 동광동 교사 단독 개강 이후, 가인가 상태에서 교육법에 따른 정식 법적 인가를 받기 위해 문교부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52년 2월 3일자로 초급대학 재인가를 받았다. 이때 학과 편제는 영어과 50명, 중국어과 50명, 체육과 50명, 합계 150명이었다.

우리는 2년제 초급대학에 안주할 수만은 없었다. 4년제 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평가액 5억 원 확충 방안 마련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52년 12월 9일 마침내 4년제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학과 편제를 보면, 법률학과 240명, 정치학과 240명, 문학과 160명, 체육학과 160명 등 전체 800명이었다.

특히 1951년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 처리 능력을 가진 선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삼고,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교육 방침으로 정한다”라는 창학이념을 발표했다. 1952년 4년제 대학 승격과 더불어 이러한 창학정신을 전문(前文)과 3개 항의 본문으로 다듬어 공포함으로써 창학정신이 비로소 성문화되었다. 하지만 동광동 가교사는 1953년 1월 19일 불의의 화재로 전소되고 말았다. 동광동 가교사 근처에 서울서 피난 온 서울 봉래초등학교 천막 교실이 있었는데, 그곳 숙직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주변 많은 판잣집과 새로 지은 가교사가 전소됐다.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공들여 지은 동광동 가교사가 잿더미로 변했지만,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곧이어 부산 동대신동 2가 87번지의 땅 700평을 새로 매입했다. 이때 세워진 가교사는 구덕산(九德山) 줄기를 뒤로 바다를 바라보는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다. 강당 겸용의 대강의실과 일반 강의실 7실, 도서관 1동, 본부 건물 1동을 신축하였고, 한 단 밑에 약 400평 가량의 운동장을 마련하였다. 가교사 정문에는 ‘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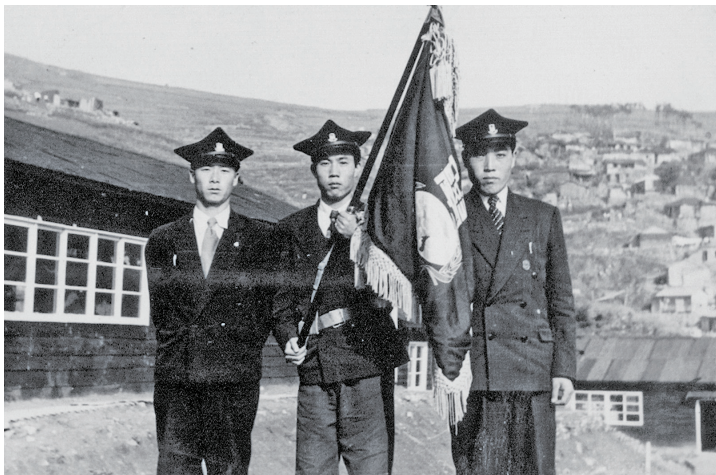
부산 동대신동 가교사 전경 (1953년)



부산 동대신동 가교사 전경 (1953년)



부산 동대신동 가교사 정문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1953년)



당시 학생들이 1953년 교기를 들고 있다.

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교훈을 새겨 놓았다.

동대신동 가교사 건립과 더불어 1953년 3월 1일 교기(校旗)와 교가(校歌)를 제정하여 그해 개교기념일을 맞아 교가 발표회를 가졌다. 교가 가사를 보면, 전반부는 학술을, 후반부에는 평화를 강조해 ‘학문과 평화’라는 우리 대학의 창학이념을 노래하고 있다. 동대신동 가교사에서 역사적인 제1회(45명; 1953년 3월 30일) 및 제2회(77명; 1953년 12월 30일)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이 시기에 교수진 강화도 괄목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요섭(영문학사), 양주동(국문학강독), 채필근(철학개론), 엄영식(동양사), 최근식(교육학), 한태수(정치사), 김기석(윤리), 문현주(체육개론), 이승녕(국어학강독), 김광선(체육방법론), 신상초(정치원론), 신도성(정치사상사), 이종수(영문학특강), 박인수(독어), 김병수(UN론), 심치수(물권법), 탁희준(노동법), 채병선(인체해부), 양희경(민사연습), 안현필(영문법), 강봉식(영문학강독), 이선근(한국최근세사) 등 그야말로 쟁쟁한 학자들이었고, 교육의 수준 또한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54년 2월 9일 대학원 설치를 인가받았다. 법률학과 10명(공법전공 5명, 사법전공 5명), 영어영문학과 10명(영어학전공 5명, 영문학전공 5명) 등 20명의 정원을 가진 대학원이었다. 그 결과, 역사적인 제1회 석사 학위수여식이 1956년 3월 29일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거행되었고, 영광스럽게도 영어영문학과에서 1명의 석사가 배출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정부의 서울 환도가 결정되었지만, 서울에 마땅한 교사가 없었기에 새로운 교지 물색이 우선이었다. 많은 고민 끝에 지금의 서울캠퍼스 자리로 정했다. 한국전쟁 중 부산에서 동광동 가교사를 짓느라 고생하고, 또 그것이 불타 버리자 천신만고 끝에 동대신동에 훌륭한 가교사를 지었는데, 그 교사가 완성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서울 이전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다소 야속함도 주저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1953년 11월 24일 서울캠퍼스 및 본관 기공식이 거행된 이후,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희망의 설렘이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퍼스 시대가 열리는 1954년 3월 24일 직전 어느 날, 부산발 ‘서울 가는 십이열차’에 실려 보낸 것은 단순한 이삿짐이 아닌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우리의 꿈과 미래였다.